

열린 무차별회 고승대법회
· 진제스님의 법어를 들었
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삐뚤 지식과 학문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광명보자”

◇서용스님이 18일 백
양사 대웅전 광장을 가득
매운 5천여 사부대중에게
“현대 사회의 위기는 분
별심에서 비롯됐다”며
“원용무애한 자비심을 키
우는 선(禪)만이 이 난국
을 타파할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이날 서용스님의
법문에 이어 해암·진제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크다”

- 약 력**
- 1934년 경남 남해 생
 - 1954년 해인사에서 석우선사를 은사로 득도
 - 1967년 함곡산에서 임제법통인가
 - 1976년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
 - 1994년 이후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 현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 주석
 - 저서 <석인대소> <선백문백답> 등

이 일천 성인의 말을 투과할 수 있도록
투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을 투
과한 자는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기(機)와 용
을 가지런히 쓰는 수원을 갖추게 되
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눈 코 귀 입을 다
닫고 있는데 용맹정진 대심심을 가진다
면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인들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깨달음도
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곳에 있는 대중들은 이제 ‘천명의
성인들의 말이 어떠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육탄속에서 거꾸러짐이로다”라고 대답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경에 오늘의 일
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천번을
날하고, 만 가지를 말해도 아는 사람이
치네./향(向)하는 미래의 길이 있으니, 내
길에 있어 부처리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
다.

법거랑 주석: “대웅전 뒤 들의 백학
이 아름답습니다”
진제스님: “차나 한잔 들게나.”

법법은 본래 부처님과 달마스님이 오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남산에 구름 일어나면
북산에 비 내리고, 구름 흩어지면 청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곳에 모인 대중
들에게 묻노니 한 마디 일러 보시오. “대
체 만 길 되는 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구해내겠는가?”

공의 경계 걱정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밝은 달을 바라보면 옛 길을 밟으리라.
푸른 구름과 들의 학은 짝을 지어 오가
는데
흰 바위 푸른 숲은 온몸을 드러내네.

큰 도(道)에 이르는 문은 없습니다. 그
러나 본질을 떠난 지식과 학문은 깨끗하
고 순진한 인간의 본래 마음을 더럽혀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가 일쑤입니다. 아무
리 좋은 보물도 깨끗한 눈에서는 장애가
되고 거울 위에 먼지가 쌓일 수록 마음의
눈은 더욱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눈을 가리는 삐뚤 지식과 학
문을 미련없이 버리고 허공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 마음의 밝은 눈을 활짝
열어 무한의 광명을 뚜렷이 바로 봅시다.
이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우리 자신은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본래 모습은 먼지에 덮인 구슬과 같습니
다. 먼지가 아무리 쌓여도 구슬의 본 성질
은 변함없지 않습니까.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다운 구슬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닦아낸 구슬은 오래도
록 빛날 것입니다.

본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
고 무한합니다. 실사 허공이 무너지고 땅
이 없어져도 자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
주의 삼라만상이 모두가 자기이기에 미물,
곤충, 유·무정물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인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
어 있기에 만약 자기 밖에서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으며 잘못된
법입니다.

현대는 물질만능에 휘둘러 자기를 잃어
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다와 같고 천
상천하에서 최상의 보물입니다. 바다를 봐
야지 거품을 따러서는 안됩니다. 거품은
물질일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대중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
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21
년 뒤 녹야원에서 아야교전 등 5비구에
게 최초로 설법하시며 “나는 중도를 정
정각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중도설은 모든 양면(兩邊)을
여의게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중도와 변견
(邊見)을 다 버리고 정등각(正等覺)을 이
루어야 합니다. 중도는 부처님 당시에만
쓰던 것이 아니고, 고금을 막론하고 불교
의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

혜 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본성은 영원하고 무한 하늘과 땅 무너져도 자기는 변함없어요”

다. 그런 이유로 중도를 알면 불법을 알
고, 불법을 알면 조사선(祖師禪)을 알며
견성(見性)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이며 구
경각입니다. 즉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여기서 견성의 내용이 무엇인
냐 하면 바로 중도를 정정각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그런데 견성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
람들이 많습니.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조사선은 도(道)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
다.

깨달음을 증득한 수행자라면 반드시 스
승의 한 마디에 대해 분명히 두 마디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한 길
이며 한번의 견성은 모든 것과 통하기 때
문입니다. 돈오돈수니 점수니 하는 논쟁이
필요없는 깨달음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들이 속세를 등지고 출가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견성성불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까. 견성에 이르는 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화두 참구
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은 일반적인 알음

약 력

- 1920년 전남 장성 생
-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47년 경북 봉암사에서 청담, 향곡, 성철스님 등과 결제
- 1949년 함양, 고봉, 동산, 금모, 경봉스님들 선지식을 참방(參訪),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선원에서 일종 일식, 장좌불와 등 두타행
- 현 해인사 원담암에 주석

알이를 투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
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참구합선을
정진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달아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우리가 일하고 장
사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화두
를 놓지않고 계속 의심하며 곱씹어야 합
니다. 앉으나 서나, 기쁘나 슬프나 화두를
청상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
면 어느 순간에 낮과 밤을 잊어버리고 결
구 우리 자신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것이 올바른 화두 참구법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대부분 삼독에 켜들
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도
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일등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간 속에서도 참선을 지속해야
 합니다. 참선에는 간화선, 염불선, 목조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화선이 으뜸입
 니다. 바로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심 삼매가 다
 지고 나면 아주 깊은 깨달음 즉 견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상승
 의 도(道)인 만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
 지 말고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공부를 안하고 지나가니
죄와 허물이 하늘에 넘치고
오늘도 닦지않고 이러하니 호랑이 밥이
로다.

돌 셋은 묻지 않거니와 격 밖의 한 마디
는 어떻게 하려는가.

동쪽에 해가 뜨니 낮과 같이 광명이 비
치고
무차별회를 하니 비로불이 광명을 놓네.
주인공아, 예에 하는 것이 이렇고,
백암산 꼭대기 뿌리없는 나무는 가을바
람 아니라도 단풍이 아름답네.

법거랑

주석: “참다운 도와 실상관
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혜암스님: “미혹과 깨달음을 쳐부수니
하늘과 땅이 밝아지도다. 이것을 잘 이해
하면 참다운 도를 알 수 있어. 깨달음 그
대가로 실상이며 삼라만상 그대로가 실상
이여. 깨닫고, 못 깨닫고가 문제지.”
정리=오종욱 기자
(gobacou@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김 병 구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나는 약 10
년에 한번 꼴로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온 듯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
은 40대 후반에 겪은 고통이 아닐까
싶다. 특별히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
였음에도 수년동안 세상에 대한 회
의와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살았다.
요즘도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 내가 만
약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다
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념에 빠질
때가 있다. 아마도 정신적·육체적으
로 지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을
지 모를 일이다.

해 백팔배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일상
생활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 데서 나온 결과임을 알게 되었
다. 마음가짐이 바뀌어 따라 자연적으
로 나타나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음 학기
부터 불교대학에 다니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장애가 생겼다.
사전에 한마디 귀찮고 없이 특과원 발
령이 난 것이다. 불혹의 나이 후반에
영원한 삶의 행로를 잡아보려는 것마
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다. 회사
내 일각에선 경제부장 정치부장에 이
어 주미 특과원이라는 요직을 두루 거
쳐가는 나의 신문기자 인생을 부러워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전혀 그
렇지 않았다. 더이상 세속의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더 늙기 전에 새로운
삶의 방향, 목표 등을 정하는 것이 시
급한 일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

“10년전 아내의 신행보고 발심 삶의 새로운 목적·방향 찾았다”

각되기 일쑤였다.
다.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찾지 않으면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고뇌에 시
달렸다.

였기 때문이다.
고심을 거듭한
끝에 관세음보살
님을 모시고 미
국으로 떠나기로
했다. 그곳에서
우리 네 식구는
한마음이 되어
매일 관세음보살
님 지방보살님
화엄성중님을 지
성경 기도문을 올
렸다. 그때 우리
의 기도는 참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나에게 이번에는
뜻밖에 정치부장
이란 직책이 주
어졌다. 정치권
의 행태를 보다
가까운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환멸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실망했다.

로 지니했다.
외국생활 초기엔 여러 면에서 안내
해 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
러나 우리예전 불교신자라는 단 한가
지 이유에서,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자는 요청을 거절했다 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고등
학교에 입학한 두 딸에게도 처음 경험
하는 미국의 학교생활을 도와 줄 친구
가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신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모두가 짧은
기간 내에 잘 적응해 갔다.

그러나 절에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의 피부색마저
바뀐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
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이갈
은 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같은 변화는 매일 아침 마음을 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더욱 열심
히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
게게 되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
는 사람을 부처님과 보살님, 화엄성중
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
실을 우리 네 식구는 체험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계속)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대그림
龍그림
(수묵화 차진)
특별보사!

◎ 목판·동판·
인쇄 복사본
보다 생김인
진본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한국 수묵화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생명의 전화 ☎ (02)242-0331,242-0255
(02)216-0307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은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硏究會

1998년도 불교지도자를 위한
불교의식(범음·범패)학인 모집

1 교수 및 교과내용
● 개강일시: 98년 9월 19일(토) 오후 2시
● 교 수: 정대은 학장스님 직강
● 교과내용: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등)다루는 범,
도량식, 쇠승, 예불, 형선축원, 천수경,
불공(삼보동정, 지장청 및 각단불공)
시식 등 전도의식, 범회의식, 생일의식,
결혼의식, 장례의식

2 모집방법
● 모집인원: 30명 ● 자 격: 제한없음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원서교부 및 접수: 98년 8월 22일(토)~9월 18일(금)
● 강의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30분

3 입학금: 일십만원
* 특 전
①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이며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고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하며, 초신자라도 여법하게 전통 불교의식을
통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② 포교사(국내, 국제) 자격 취득 가능
③ 동국대학교 대학원과정 입학 가능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뒤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FAX: 765-3169
해동불교 범음대학
해동불교 의식 교육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설진장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